

## 문학 번역가의 자유: 베르만과 투리의 관점 비교\*

이 영 훈  
(고려대)

### 1. 서론: 연구 배경

주지하다시피, 지난 20여년간 번역가<sup>1)</sup>의 작업 환경과 번역 시장이 급속도로 변화해왔다. 한편으로, 인간 번역가가 중심이 되어 인간의 번역능력을 바탕으로(human translation) 혹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computer-aided translation) 번역 작업이 이루어져 오던 것이 전통이었으나, 기계번역에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도입됨으로써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 속

\* 본 논문은 2018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1) 본고에서 우리는 국어사전 등재를 통해 사회적으로 공인받지는 못하였지만 번역학계나 통번역업계에서 관례적으로 번역 전문가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해온 ‘번역사’라는 명칭 대신 모든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사회적으로 인정된 ‘번역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참고로 ‘통역사’라는 명칭은 ‘번역가’와 더불어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하고 포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표준국어대사전 등에 등재되어 있으나 ‘번역사’는 그렇지 않으며 단지 포털 다음에서 제공하는 고려대 국어대사전에만 등재되어 있다.

에 인간 번역가의 작업이 기계 번역의 결과를 보정(post-editing)해주는 역할로 한정되기 시작하였다. 다른 한편, 전문 번역가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번역 업무가 애호가, 소비자 및 자원자에 의해 개인적 취향이나 사회적 참여의 목적으로 이른바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상의 협업 번역(collaborative translation) 또는 다중참여 번역(crowdsourcing translation)의 방식으로 그 문호가 나날이 개방되고 있다. 특히, 구글 등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기계번역기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보급됨으로써 집단지성과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일반인 번역가(layperson translator)’들이 번역가의 전문성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인공지능과 집단지성의 시대에 이처럼 번역가의 전문성이 다각도로 의심받고 업무영역이 나날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번역가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전통적으로 번역가의 주변적 위상이나 종속적 성향에 익숙해져 있고 자민족 중심적 문화 교섭을 통해 번역가의 비가시성이 고착화된 서구 사회에서 기계번역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단순 중개자(intermediary)로서의 인간 번역가의 존재감마저 완전히 상실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아래와 같이 제기된 바 있다.

What is revealing about Google Translate is not the limits to what it can do, but the unlimited nature of what it says about what it means to translate. What we have, in effect, is another form of disintermediation: in this instance, the translator as intermediary is nowhere to be seen. The labour of translation is made invisible, and the only ostensible labour is the greater or lesser degree of post-editing on the part of the user, as they try to make sense of the translated passages. (Michael Cronin 2013: 45-46)

다른 한편, 언어서비스업체들(language service providers)을 중심으로 번역 작업을 단순한 ‘언어 전환(language transfer)’으로 좁게 해석하고 전문 번역가를 기껏해야 번역 도구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 번역가는 “목소리도, 공감 능력도, 주관성도, 성찰 능력도, 해석 기술이나 문화상호적 민감성도 결여된 수동적 중개인”(Yves Gambier 2016: 889)일 뿐이다. 대신 현지화 전문가나 트랜스크리에이터, 광고 카피 전문가 등 비번역 전문가들(non-translation

professionals)이 번역가의 단순 업무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창의적인 작업을 한다는 것이 번역 업무에 대해 언어서비스업계에 일반화된 인식 현황이다. 이에 따라 번역학계에서도 일반인들과 통번역업계의 변화된 인식을 고려하고 기계 및 비번역 전문가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등가 기반 번역 개념에서 벗어나 트랜스크리에이션(transcreation) 개념의 도입을 통해 번역가의 창조적인 능력과 업무의 복잡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아래에 인용된 데이빗 카탄(David Katan)의 글에서 번역학계의 절박한 인식과 고충을 잘 느낄 수 있다.

So, at the cross-roads, individual professionals could continue taking the traditional turn to specialize as low-risk ‘faithful’ T/Is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but with the need to compete keenly with the onslaught from machines or from cheaper, if not volunteer, others; or they could ‘simply’ step into the role of transcreator, which would allow them to take advantage of an already assigned professional recognition of their creative role, and which would authorize them to take account of the impact of cultural distance when translating. There really is no question about it: if T/Is are to survive, then they must make the transcreational turn. (David Katan 2016: 377-378)

그런데 트랜스크리에이션의 핵심 개념은 당연히 창의성(creativity)<sup>2)</sup>이고 창의성은 자유(freedom)가 전제되어야 개발되고 발휘될 수 있다. 이 점은 번역학자(Durieux) 뿐만 아니라 심리학자(Wenkart) 및 교육학자(Erez)도 다음과 같이 인정하는 바이다.

Liberté et créativité, la compatibilité est évidente : on ne saurait concevoir d’expression de créativité sans liberté. (Christine Durieux, 1991: 169)

2) 번역의 창의성에 대해 번역학자인 랜스 휴슨(Lance Hewson)과 문화심리학자인 블라드 글래비뉴(Vlad Petre Glăveanu)의 상이한 관점을 비교해보면, 휴슨(2006: 3)은 번역가가 진정으로 새롭게 다시쓰기를 하는데서 창의성을 찾는 반면, 글래비뉴(2016: 172)는 번역이 본질적으로 변형이기에 번역에는 항상 차이가 수반되며 그 점에서 번역은 어느 정도 창의성을 내포한다고 생각한다.

Creativity and freedom are inseparable. Freedom—the internal as well as the external condition—is also exquisitely human, and it lays the foundation for creativity. (Antonia Wenkart 1963: 195)

But, as creativity is not something that can simply be taught, we must create the conditions for its development. The main condition is freedom—freedom to raise original unorthodox ideas, freedom to deal with complex issues even when the student’s body of knowledge is insufficient, and, most importantly, freedom to fail. (Ronny Erez 2004: 133)

따라서 번역가의 자유가 바로 트랜스크리에이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The notion of transcreation is commonly adopted to define a process that is presented as “more than translation” (Pedersen 2014, p. 62), and which is characterised by the greater freedom that translators are given while adapting source texts. (Pietro Luigi Iaia 2016: 121)

본고에서는 현대 번역학의 주요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 트랜스크리에이션의 특징인 번역가의 자유 문제를 문학번역의 틀 내<sup>3)</sup>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앙트완 베르만(Antoine Berman)과 기데온 투리(Gideon Toury) 두 번역학자의 입장을 대조하여 보게 될 것이다. 이는 두 사람이 서구의 대표적인 문학번역 이론가들이며, 이들의 이론이 문학번역가의 정체성에 대한 서구의 대립되는 두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베르만은 문학번역 탐구에서 번역가의 주체성을 부각시키려고 하였다면, 투리는 번역가가 속한 사회의 번역규범을 논의의 중심에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베르만과 투리의 번역이론에 대한 비교 연구는 시오반 브라운리(Siobhan Brownlie)가 우리에게 앞서 시도한 바 있는데 그의 연구는 두 사람의 이론들에 대한 완전한 조망을 하기 보다는 토마스 쿤(Thomas Kuhn), 장-프랑스와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 데렉 부스만(Derek Boothman)의 관점에서 두 가지 연구 틀 간의 ‘번역가능성(translatibility)’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sup>4)</sup>.

3) 사실, 창의성이 가장 요구되는 분야가 문학번역이며, 문학번역도 최근의 업무 환경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4) “I do not aim to give a ‘complete’ overview of Berman’s and Toury’s theories; I

브라운리는 베르만과 투리 간의 상호 수렴되기 힘든 ‘결정적 입장 (determining position)’<sup>5)</sup>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116). 앙트완 베르만의 번역이론은 ‘진정한 번역(true translation)’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상주의적이고, 현대 해석학과 독일낭만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번역비평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규범적(prescriptive) 성격을 갖는 반면 기데온 투리의 이론은 사회와 역사에 따른 번역 규범의 변천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상대주의적이고, 경험 과학과 다중체계 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도착 사회에서 인정하는 ‘추정 번역 (assumed translation)’을 면밀히 살피려 한다는 점에서 기술적(descriptive) 성격을 지닌다. 그럼에도 브라운리는 문학번역에서 개인과 사회 권력의 관계는 베르만과 투리의 관점에서 개인적 창의성과 사회적 제약 사이의 선택의 문제인 것이 아니며 어느 한 축의 배제 없이 번역가 개인의 주체성이냐 또는 사회적 규범이냐에 대한 서로 다른 강조(emphasis)의 문제일 뿐이므로 두 이론이 근본적으로 수렴 불가능한(incommensurable)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같은 글: 111). 이에 대해 우티 팔로포스키(Outi Paloposki 2009: 190)는 한술 더 떠서 두 사람의 입장 차이는 결코 모순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보완(supplementarity)의 문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로랑 라미(Laurent Lamy 2013: 7, 8)에 따르면, 베르만과 투리 사이에 실제 논쟁이 없었으므로<sup>6)</sup> ‘이견(différend)’의 존재에 대해 확신할 수 없으나, 굳이 두 사람의 이론 상의 이견을 찾자면 베르만에게 번역자 개인의 해석적 양상들이 우세한 반면, 투리는 이러한 요인들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으

---

shall only mention aspects of their theories and writings which are pertinent for my concern with the issue of the translatability and translating of research frameworks.”(Brownlie 2003: 99)

- 5) 이는 부스만(2002: 116)의 술어로 이론들의 철학적 토대를 가리킨다.
- 6) 베르만은 1994년 발간된 유작 『번역비평을 위하여: 존 돈(Pour une critique des traductions: John Donne)』에서 자신의 번역비평 이론을 개발하는데 투리의 이론을 참고하였으나 투리에게는 번역 주체에 대한 이론이 부재하며, 번역가를 단순한 “사회적 담론의 규범들의 중계자(relais des normes du discours social)”(같은 책: 60)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비판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투리는 2002년 한 논문(210-211)에서 베르만의 비판에 답하지 않은 채, 베르만의 번역비평은 자신의 기술적 연구와는 관심사가 다르다고 지적하였고, 이어서 자신의 주저인 『기술번역학과 그 너머(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의 개정판(2012: 19)에서 브라운리의 논문을 각주에서 소개한 적이 있다.

면서도 개인의 창조성에 대해 분명히 덜 관심을 표명한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자는 번역가가 처한 작금의 시대적 상황 또는 요청을 고려할 때 베르만과 투리의 이론들 간의 관계를 둘러싼 이러한 주장들이 매우 안일하다고 판단하며, 인공지능 번역과 집단지성 번역의 발전에 의해 그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번역가의 자유에 대한 보다 냉철하고 예리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보기에 베르만과 투리의 입장 차이를 문학번역가의 자유를 대상으로 세밀하게 비교하고자 한다.

## 2. 번역가의 위상과 자유에 대한 일반 담론

서구 번역사에서 번역가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대표적인 은유는 하인의 은유이다. 독일의 유대인 성경번역가인 프란츠 로젠츠바이크(Franz Rosenzweig, “Die Schrift und Luther”, 1926)는 일찍이 이를 “번역하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을 말한다(Übersetzen heißt zwei Herren dienen)”(1984: 749)고 표현한 바 있다. 번역가가 한편으론 원작자와 그 언어를, 다른 한편으론 번역의 독자와 그 언어를 모신다는 뜻이다. 이는 물론 번역가의 입장에서 나온 말이다. 반면 서구 역사에서 번역가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시선은 ‘번역자’의 의혹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의 속담인 ‘Traduttore traditore’는 ‘번역자는 반역자’로 옮길 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베르만(1984: 14-15)의 표현대로 수없이 많은 성공과 걸작과 소위 불가능의 극복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번역에 대한 대중의 최종 판결로 남아있다.

한편,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아비투스*(habitus)개념을 번역학 연구에 최초로 도입한 다니엘 시메오니(Daniel Simeoni 1998: 7, 12)는 서구의 번역가들이 문화 영역의 지배적 직종들 가운데 부차적인 지위에 계속해서 머물러왔으며, 오늘날 서구에서 번역가가 된다는 것은 고객, 대중, 저자, 텍스트, 언어 혹은 문화에 거의 전적으로 영합하는데 동의하는 것이라고 토로하였다. 더구나, 현대 서구 번역학의 기원으로 꼽히는 논문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1972)에서 제임스 홈즈(James S. Holmes 1988: 74)는 번역학의 하위 분류 가운데 매체 제한적 번역이론들

(medium-restricted translation theories)의 관점에서 번역 행위의 수행 매체가 인간이나 컴퓨터나 혹은 인간과 컴퓨터의 결합이나에 따라 인간 번역(human translation), 기계번역(machine translation), 혼성 또는 기계 지원 번역(mixed or machine-aided translation)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번역가를 번역 행위의 주체가 아닌 매체로 보는 시각이 오늘날 학계와 사회에서 번역 작업에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으리라는 환상을 심어주는데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다른 한편, 문학번역가의 해방을 부르짖는 논문에서 영국의 문학번역가 데이빗 몰렛(David Mollet 2000: 7)은 문학번역가의 자유란 모든 이론 및 제한에서 해방된 상태에서 창의적인 번역을 시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번역가는 독자들에게 자신만의 번역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문학비평가이자 번역가인 조재룡(2018: 502)은 창의적인 번역이 번역가의 재능이자 번역가가 통념으로부터 해방될 자유 또는 그 가능성을 의미하며, 번역가 자신이 자유로운 존재임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다시 쓰기로서의 번역을 주장한 앙드레 르페브르(André Lefevere 1992: 9)에 따르면, 번역가는 제약 속에서 작업을 하며,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선택 여지가 없는 기계적인 상태에서 번역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번역가에게는 제약들이 구획해놓은 반경 안에 머물 자유나 제약들에 맞서 제약들을 넘어서는 시도를 하는 자유가 주어질 뿐이라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른바 목표중심적 번역이론의 옹호자인 장-르네 라드미랄(Ladmiral 2014: 101, 136)은 미학적·문학적 평가의 주관성에서 비롯되는 번역가의 자유는 제약의 부재가 아니라 제약의 통제를 말하며, 한쪽에는 출발 텍스트, 즉 원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도착 사회의 언어, 문화, 대중, 전통 등이 있어 이 두 가지를 번역가가 대처해야 할 제약들로 꼽고 있다.

끝으로, 번역 방법들 중 번역 상의 자유와 관련 있는 것이 이른바 의역(*free translation*)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포털 네이버의 국어사전<sup>7)</sup>을 살펴보면 원문의 단어나 구절과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번역 상의 자유로 보고 있

7) 의역(意譯): 원문의 단어나 구절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전체의 뜻을 살리어 번역함. 또는 그런 번역.

다. 같은 맥락에서 영국의 문학번역가이자 번역학자인 샬탈 라이트(Chantal Wright 2007: 147) 또한 어떤 경우에도 헛수고에 그치는 원문을 충실히 재생하는 의무에서 번역가는 자유로운만큼, 창조적 주체로서 번역을 통해 원문의 지속적인 재해석과 비옥화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번역가의 지위에 관한 일반 담론들에는 공통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한 반면, 번역가의 자유에 대해서는 자유의 정도나 대상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혼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서구의 대표적 두 번역이론가인 베르만과 투리에게 문학번역가의 자유가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이들의 주요 저작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 3. 베르만에게 문학번역가의 자유란?

문학번역가의 자유에 대한 베르만의 언명은 1985년 발간된 논문 모음집 『바벨탑들: 번역에 관한 시론(*Les tours de Babel: essais sur la traduction*)』에 실린 「번역과 문자 혹은 먼 것의 거처(*La traduction et la lettre ou l'auberge du lointain*)」<sup>8)</sup>와 1994년 사후 발간된 『번역비평을 위하여: 존 돈』에 집중되어 있다. 먼저, 1985년 논문 초반부에서 베르만은 서구 문학번역의 전통적이고 지배적인 두 형식이며, 서구 사회에서 ‘번역자는 반역자’라는 부정적 인식의 원인이 된 ‘자민족 중심 번역(*traduction ethnocentrique*)’과 ‘덧어쓰기 번역(*traduction hypertextuelle*)’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바 있다. 이때, ‘자민족 중심 번역’의 두 가지 원리는, 베르만에 따르면, 외국 작품을 번역같이 느껴지지 않도록 번역하는 것과 마치 원작자가 도착언어로 글을 쓴 것 같은 느낌을 주도록 번역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번역같이 느껴지지 않도록 번역한다는 것은 번역문에서 출발 언어의 흔적이 사라지고, 도착 언어의 창작물보다 더욱 규범적인 언어로 번역문이 작성되어, 낯선 언어의 요소들이 목표 독자들의 감수성과 충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마치 도착언어로 쓴 것처럼 번역한다는 것은

8) 베르만의 이 논문은 베르만 사후 1999년에 같은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고, 이 단행본에 대해 2011년 『번역과 문자: 먼 것의 거처』라는 제목으로 한국어 번역본이 출간되었다.

작품이 원천 독자들이나 목표 독자들에게 동일한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주도록 번역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두 원리를 준수하기 위해 번역가는 원문에 대해 가하는 각종 문학적 변형을 통해 번역문을 ‘문학화(littérisation)’하게 되는데 이같은 번역가의 개입을 베르만은 ‘자유로운 재창작(recréation libre)’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재창작의 자유가 미치는 부정적 효과들을 지적하였다. 또한, 베르만에 의하면, 번역가는 도착 사회가 부과하는 자민족 중심 번역의 요청에 굴복하여 원작에 덮어쓰기식 조작을 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프랑스의 고전기 번역의 ‘부정한 미녀(les belles infidèles)’ 시대에 명백히 나타났고 오늘날에는 보다 암묵적으로 재현되고 있다. 물론, 문학번역이 일정 시기 자국 문학의 지평 속에서 행해지는 만큼, 모든 문학 번역에는 일정 부분 덮어쓰기 변형이 포함된다는 사실은 베르만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학 번역이 해당 시기 문학 지평에 종속되거나 당대의 문학적 실천 방식들과 혼동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일부 시인들이 외국 시인의 작품을 번역할 때 이른바 ‘시인들 간의 대화의 법칙들’을 구실로 삼아 번역가의 통상적 의무에서 면제되었다고 생각하여 결국 원작을 왜곡한 ‘자유로운 재창작’에 불과한 번역들을 만들어 냈는데, 이 같은 시인으로서의 ‘방종(libertés)’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문학 창작에서는 선행 텍스트에 대해 행해지는 각종 모방, 패러디, 각색, 표절, 혹은 기타 모든 형식상의 변형과 같은 덮어쓰기 조작들이 관계적이고 자유롭지만, 번역에서 이 같은 덮어쓰기적 실천은 “번역은 창작이 아니다”라는 구실로 부차적이고 굴종적인 덮어쓰기로 폄하될 뿐이다. 더구나 번역이 창작처럼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순간 ‘번역’의 꼬리표가 붙게 되므로 베르만의 입장에서 번역가는 덮어쓰기 번역을 결코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요컨대 「번역과 문자 혹은 먼 것의 거처」에서 시사되는 문학번역가의 자유에 대한 베르만의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이어서, 이 때 자유는 재창작자로서의 방종이거나 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자민족 중심 번역의 요청에 굴복하여 원작을 왜곡하는 변형 조작을 수행한 것일 뿐이며 진정한 번역가의 자유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베르만 사후에 발간되었고, 베르만의 번역비평 이론을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받는 『번역비평을 위하여: 존 돈』에서 베르만은 문학번역가의 자유에

대해 보다 복잡적이고 섬세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 책에서 베르만은 번역에서 주체 개념의 세 가지 요소로 개인화(individuation), 성찰(réflexion), 자유(liberté)를 꼽고 있는데(같은 책: 60), 이 가운데 개인화는 모든 주체가 유일하며, 모든 번역은 항상 어느 누군가에 의한 번역이란 뜻이다. 성찰은 모든 주체가 자기 자신과 관련되는 존재라는 것이고, 번역가가 예를 들어 사회적 규범의 ‘중계자(relai)’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선택의 결과이며, 번역가가 규범을 따르는 것도 그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자유는 모든 주체가 책임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자신의 일에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번역가는 자신의 번역에 대해 판단을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한다<sup>9)</sup>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베르만의 경험에 따르면, 번역비평을 통해 철저히 분석해볼 때 문제가 되는 거의 대부분의 번역가에게서 일종의 자만심, 태만, 원저자와 대중에 대한 객관적 무시로까지 이어지는 건방짐, 자기 도취적 배려, 일관성의 결여가 드러난다는 것이다(같은 책: 47).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번역가의 ‘번역 심성(psychè traductive)’에는 일종의 무사안일함(impunité)이 깃들어 있으며, 이 번역 심성은 그들 속에서 작동하는데 아무도 번역 심성이 수행하는 바를 ‘가까이서 보지 않기’에 고독 속에 스스로에게 맡겨진 번역가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으며, 이른바 번역가의 ‘자유’를 구실로 원작을 자신의 뜻대로 주무르게 된다. 사실, 번역가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이 한 일을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심지어 출판사 관계자나 의뢰인에게도 거짓된 보고를 하거나, 이들과 사회적 통념(doxa)을 공유하는 덕분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묵인을 받기도 한다. 번역가는 스스로 체계적이지 않을 수도 있으며, 단지 체계적으로 보이길 요구 받을 뿐이다. 그가 마음내키는 대로 멋부리고, 미화시킨들 누가 패념하고, 누가 와서 보겠는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슬쩍 넘어간다 한들 누가 의심하겠는가? 이렇게 번역 심성은 허위의 공간 속으로 빠져들고 심지어 번역가 자신을 속이기까지 한다. 번역가 자신이 충실하고, 정확하고, 창의적이라 믿게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회미한 의식의 그늘에서 작동하는 ‘번역 심성’에서 비롯된 허위의식

9) “C’est parce qu’il est responsable de son travail que le traducteur peut, et doit, être jugé”, 같은 책: 60.

으로서의 자유 외에도, 베르만이 보기에 번역가가 주창하는 자유의 또 다른 측면에는 마치 거짓된 충실성이 존재하듯이 ‘잘못된 자유(mauvaise liberté)’가 존재한다. 이것은 번역가의 자유(liberté)가 방종(libertés)의 형태를 띠 때 그 모습을 드러낸다. 노예가 아닌 창조자가 되겠다는 핑계 하에, 대중의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구실로, 번역가는 원작에 대해 과도한 자유를 누리려 한다. 이 중 가장 거만한 자유는 바로 시의 이름으로 자신만의 시학을 원작의 시학에 내려찍는 시인 번역가의 자유이다. 원작에 대한 단순 조작으로 귀결되는 이러한 방종은 시인 번역가가 안고 있는 모든 허약함, 나태함, 자만심의 발로이기도 하며, 모든 번역가들이 끊임없이 소리높여 외치면서도 동시에 위반하게 되는 충실성의 원칙에 대한 거짓된 심성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탈리아의 속담대로 ‘번역자는 반역자’인 셈이다.

그렇다면 베르만에게 진정한 아니 올바른 번역가의 자유란 무엇인가? 이것은 번역가가 원작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번역 심성에 충실하여 원작을 변형하는데 필수적인 자유, 즉 ‘원작에 맞서서(tenir tête à l'original)’ 원작에게 아니라고 말하는 자유로서, 이를 통해 번역하기가 윤리적 관계로 피어나고 원작에 담긴 문화의 어두워서 접근 불가능한 구역들이 존중받게 된다(같은 책: 47). 번역 작업은 사실 자유로운 주체, 즉 번역 상의 근본적 선택에서 뿐만 아니라 국지적이고 일시적인 건건의 선택에서 자유로운 주체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자유는 충실성과 굳이 다른 것이 아니며 번역가의 몫은 이 자유-충실성이 작동하는 공간을 위협을 무릅쓰고 확보하는 일이라는 것이 베르만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자유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번역가는 자신이 취한 자유 내지 방종을 사실 그대로 고백해야 한다고 베르만은 덧붙인다. 마치 17세기 페로 다블랑쿠르(Nicolas Perrot d'Ablancourt)가 이른바 ‘부정한 미녀’식 번역의 기원이 된 루키아노스(Lucianos)의 작품들에 대해 행한 각종 자유로운 변형들을 놓고 “이것은 고유한 의미의 번역은 아니지만 번역보다 나은 것이다”<sup>10)</sup>고 쓴 것처럼 말이다. 번역가는 원작 및 대중에 대한 불경의 태도로 의심받을 수 있는 온갖 조작을 범하더라도 이를 감추지 않고 솔직한 게임을 하는 한 모든 권리를 누리게 된다.<sup>11)</sup>

10) “Cela n'est pas proprement de la traduction; mais cela vaut mieux que la traduction...” (“Epistre à Monsieur Conrart conseiller et secretaire du roy”, in *Lucien, de la traduction de N. Perrot S' d'Ablancourt*, Augustin Courbé, 1654, x)

사실, 역사적으로 번역가가 번역이 아닌 변안을 할 것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거나, 말한 것과 다른 행동을 하였기에 ‘번역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다.

더구나 베르만의 관점에서 번역가의 자유는 거스를 수 없는 번역의 법칙(*loi de traduction*), 서구 사회에서 전승된 번역의 이념(*Idée de la traduction*), 이 이념이 시대별로 구체화된 번역 형상(*figure de la traduction*) 외에도 글쓰기 규범이 중심이 된 시대별 번역 지평(*horizon traductif*)의 제약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번역의 법칙이나 번역의 이념은 번역가 개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영역이나 번역의 형상이나 번역 지평에서 비롯된 글쓰기 규범에 대해서는 번역가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거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유가 번역가의 권리가기도 한 것이다. 대신 번역가는 본인의 행적을 과감히 밝혀 번역비평가와 대중 독자들로부터 자신의 행동의 진정성(*véridicité*)에 대해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본인이 누리는 자유에 따른 책임있는 행동이다. 또한 이를 위해 번역가는 자신만의 ‘번역 입장(*position traductive*)’을 개발함으로써 번역가로서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위협하는 세가지 요소, 즉 카멜레온 같은 비정형성, 자유가 아닌 변덕, 은신(*effacement*)의 유혹에 맞서서 나름의 몸집을 키울 수 있게 된다(같은 책: 75). 결국, 베르만에게 번역가의 진정한 자유란 유일무이한 개인성에 바탕을 두고,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신이 번역가로서 누리는 자유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 4. 투리에게 문학번역가의 자유란?

기데온 투리는 번역을 ‘규범 지배적 활동(*norm-governed activity*)’으로 보는 대표적인 서구 이론가 중 한 명이다. 그는 주저인 『기술번역학— 그리고 그 너머(*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초판(1995)에서 “번역은 문화적 함의를 지닌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번역가의 자격(*translatorship*)’은 무엇보다 사회적 역할, 즉 공동체가 이 활동, 그 실행자 그리고 또는 그 산물에 할당한 기능을 고유한 기준에 따라서 적합해 보이는 방식으로 수행할 수

11) “Le traducteur a tous les droits dès lors qu’il joue franc jeu.”, Berman, 같은 책: 93.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런 종류의 행동의 적절성을 결정하고 이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모든 요인들 사이에서 처신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규범들의 습득은 따라서 문화적 환경 내에서 번역가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1995: 53)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1980년에 출간된 초기 논문에서 투리는 번역을 ‘사회적으로 맥락지워진 행태적 활동 유형(socially contexted behavioral type of activity)’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번역이라는 활동 유형 내의 어떠한 단일 행위도 마치 번역될 텍스트와 장차 번역가가 되고자 하는 인간 사이의 특별한 개인적 만남으로 간주하는 것, 다시 말해, 과거의 모든 부담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번역가가 자신의 방식대로 번역 문제들을 규정하고, 이에 대해 자신만의 해결책들을 제시할 완벽한 자유를 구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할 뿐만 아니라 착각하는 셈이다. 또한 번역이 완전히 규칙 지배적 활동이고, 번역가는 전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 번역 사건에만 적합한 것으로 상정된 규칙이나 규칙의 조합들로부터 자동적으로 파생되는 일련의 조작들을 수행하는 것이 번역가에게 남겨진 유일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착각이다”(1980: 180-181)고 다소 결이 다른 설명을 제시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애초에 투리에게 번역가는 ‘완벽한 자유와 자유 없음 사이에’ 놓인 존재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투리가 규정하는 바 대로, 번역 활동을 지배하는 규범들의 위상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투리에 의하면, 번역 규범은 객관적이고 다소 절대적인 규칙들과 완전히 주관적인 특이성들(idiosyncrasies)이라는 두 극단 사이에 놓여 실질적 중간 지대를 형성하는 상호 주관적 요인들(intersubjective factors)이며, 특정 사회 집단이 공유하는 일반적 가치와 관념들이 특정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특정 수행 지침들로 ‘번역된’ 결과이다(같은 글: 181).

또한, 번역가가 왜 번역 규범들을 반드시 알고 의식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는 마치 진짜 원본(authentic originals)같은 번역들을 만들어낼 생각에 무조건적으로 규범들을 경계하거나 도착 사회의 주류 번역 경향에 편입될 요량으로 해당 번역 규범들을 항상 활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번역가로서 자신과 자신의 번역에 부과될 위상에 대해 충분히 알고 이해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자유롭고 의식적인 결정’을 할 수 있기 위함이라는 것(같은 글: 186)이 투리의 대답이었다.

이제 투리의 규범 중심 번역이론 내에서 번역가의 자유가 어떻게 행사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투리는 번역과 규범의 관계에 대한 선행 논의들을 종합한 소논문(1998: 20)에서 “모든 것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선택의 자유는 보장된다(“All is predestined – but freedom of choice is granted”)는 다소 역설적인 유대교의 잠언을 인용하면서 번역을 규범 지배적으로 보는 시각은 결코 번역 행위 동안의 자유로운 선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번역에서 완전히 의식적 결정이든 아니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율적인 개인으로서의 번역가 자신이며, 대신 그 결과를 감내해야 하는 것도 번역가 자신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번역가들 중 누군가가 비관습적·비규범적 결정들이 수반하는 위험을 무릅쓸 가능성이 항상 있지만, 번역가라면 아무래도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부정적 제재를 회피하고 적절한 행동에 따르는 보상을 얻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제목이 약간 수정된<sup>12)</sup> 『기술번역학 그리고 그 너머(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 and beyond)』의 개정판(2012: 68, 87)에서 투리는 앞선 논문과 유사한 맥락에서 번역가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행동 결정의 자유가 아니라 선택의 자유라고 바꾸어 말하고 있다. 즉, 번역가의 행동에서 도처에 만연한 유형들에서의 일탈이 일어날 때 뿐만 아니라 규범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할 때도 선택의 자유가 분명히 주어진다. 따라서 어느 번역가든 반규범적, 즉 전복적 결정들은 차치하고라도 비규범적 결정들이 수반하는 위험을 무릅쓸 가능성은 항상 있지만 그럼에도 정상적인 번역가라면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부정적 제재를 회피하고 적절한 행동에 따르는 보상을 얻고자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비규범적 또는 심지어 반규범적 행동에 따른 대가는 번역 과정에서 최종 번역물에 대한 교정을 권유받을 정도로 미약할 수도 있으나 번역가로서의 자격을 철회당할 정도로 심각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월이 지나 되돌아 보면 번역가의 일탈적 행위들이 번역 시스템 전체에 변화를 초래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 투리의 생각이다. 아무튼 투리의 설명대로라면 번역가는 번역 규범의 위반에 따른 각종 위험 부담으로 인해 선불리 일탈적 행위를 감행할 용기를 얻

12) 1995년 초판 제목에 없던 대시(-) 기호가 2012년 개정판에서 삽입되었다. 이는 기술번역학(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을 넘어 투리가 목표로 한 설명번역학(explanatory translation studies)으로 가는 길이 보다 멀어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지 못하게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번역가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번역 규범을 위반한다면 이런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 궁금해지게 마련이다. 투리는 번역 규범과 번역 교육의 관계를 논한 소논문 “The Translator as a nonconformist-to-be, or: how to train translators so as to violate translational norms”(1980: 190)에서 번역 교육을 위해 설정된 목표가 ‘토종 인간 번역가(native human translator)’의 전체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제한된 형태로 유일하게 적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인데, 번역 교육에서 추정된 번역 능력 개념을 떠받치고 있는 번역 규범이 해당 문화에서 우세한 번역 규범과 일치할 수도 있고,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물론, 후자의 경우 해당 사회를 교화하고, 그 사회의 번역 규범에 변화를 일으켜 번역 교육에서 상정되는 번역 규범과 조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기존 번역 규범에 따라 생산된 번역물의 기준을 개량할 수도 있고, 그럴 필요도 있는데, 이를 위해 투리는 예비 번역가가 기존 번역 규범을 위반하고, ‘비순응적 번역가(nonconformist translator)’가 되도록 교육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런데 이같은 투리의 권고는 결국에는 비순응적 번역가가 되어 기존 번역 규범을 위반하도록 하는 것이 번역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각각의 맥락에서, 다시 말해 시대별 문화에 따라 변화하는 번역 규범에 맞추어 다양한 번역 양식들에 눈과 마음을 열게 해주고 번역가로서 자신의 길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가는데 도움을 주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제안된 것이다. 이점을 투리 자신이 후기 저작에서 해명한 바 있다(2012: 293).

궁극적으로 투리에게 문학번역가의 자유는 번역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율적 결정이나 선택을 통해 주로 행사된다. 물론, 누군가가 기존 번역 규범을 위반하는 위험을 무릅쓸 수도 있고, 그 결과 기존 번역 규범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번역가의 자유에 포함되지만, 투리는 ‘정상적인’ 번역가들은 기존 규범의 위반에 따른 제재에 대한 부담과 불안으로 인해 오히려 적절한 규범 친화적 행동으로 보상을 기대하리라고 판단한다. 게다가, 장래의 번역가들에게 다양한 번역 규범에 따른 번역 유형을 경험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순응적 번역가 되기 교육을 실험적으로 시도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현장에서 그대로 실천되리라고 그는 보지 않는 것이다.

## 5. 결론: 문학번역에서 번역적 허용과 진정한 자유

독일 출신의 정신분석학자인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주저인 『자유로부터의 도피(*Escape from Freedom*, 1941)』에서 부정적 의미의 ‘벗어나는 자유(freedom from)’와 긍정적 의미의 ‘지향하는 자유(freedom to)’를 구별한다(같은 책: 48, 50). 프롬은 ‘벗어나는 자유’가 개인에게 부과된 사회적 관습과 같은 제약들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리키며, 역사적으로 투쟁의 목적이 되어왔지만, 그 파괴적 성격으로 인해 ‘지향하는 자유’, 즉 창조적 행위에서 총체적이고 통합된 개성을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자유를 수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개인은 권위에서 해방되는 과정에서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느껴 기존의 권위를 대체하여 의존할 수 있는 또다른 권위에 귀의하게 되며, 이같은 ‘자유로부터의 도피’ 현상은 개인이 ‘지향하는 자유’를 온전히 행사하게 될 때까지 지속된다는 것이다(같은 책: 97, 155).

프롬의 ‘벗어나는 자유’와 ‘지향하는 자유’ 개념을 베르만과 투리의 문학번역가의 자유에 대한 입장에 대입시켜보면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비교가 가능해진다. 먼저, 베르만에게 문학번역가의 자유는 시대별 번역 형상과 번역 지평, 그리고 번역 심성에 내재한 무사안일과 재창작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와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번역입장에 대한 성찰을 기반으로 한 번역가의 주체성을 ‘지향하는 자유’로 구분될 수 있다. 반면, 투리에게 문학번역가의 자유는 자유롭게 결정 또는 선택을 하기 위해 번역 규범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작동하는 ‘벗어나는 자유’와 번역 규범을 위반함으로써 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향하는 자유’로 나눌 수 있다. 그럼에도 투리의 입장에서 번역가들은 번역 규범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제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지향하는 자유’에서 도피하고 대신 규범에 순응하는 번역가가 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추구하게 된다.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가운데 작가나 예술가에게만 허락되는 시적 허용(poetic license) 또는 예술적 허용(artistic license)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프롬이 강조하는 ‘지향하는 자유’의 구체적인 실현 양상들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시적 허용은 일반적으로 시인에게 사실적 정확성이라는 정상적인 산문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상상력과 언어 차원의 자유<sup>13)</sup>를 가리

키며, 좁은 의미로는 시인이 시적 형식의 제약을 만족시키기 어려워 언어 체계의 몇가지 정상적인 제한들을 풀어버리는 재량을 취하는 것<sup>14)</sup>에 해당되기도 한다. 이처럼 창작의 자유의 일종인 시적 허용의 한 사례로 몇 년전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어느 시인의 인터뷰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박준 시인, 2017년 8월 4일)

◇ 정관용> 5년 전에 낸 첫 번째 시집 제목이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진짜 시적이네요, 제목이. 이게 말은 안 되죠. 사실은.

◆ 박준> 비문입니다, 문법적으로. 그런데 이 제목이 붙은 게 저희가 요즘 예야 의약분업하면서 병원에서 처방전 받지만 과거에는 약국에 가서.

◇ 정관용> 조제했죠.

◆ 박준> 감기약 며칠치 지어주세요, 3일치 지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을 먹었다가 사실 당신이라고 불리는 이 상대가 나한테는 약 같은 존재다 그래서 며칠 지어 먹는다,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밥을 짓는다고 얘기하는데. 밥 지어서 며칠 먹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약 같은 존재이자 밥 같은 존재다.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 이런 말을 하려고 비문을 무릅쓰고 이런 시집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위와 같이 예시된 시적 허용 개념을 번역가의 자유 개념에 적용하면 '번역적 허용(translative license)'이라는 개념을 도출해낼 수 있다. 아직 번역학계에는 생경한 이 개념을 통해 번역가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언어-문화적 잠재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다른 사회의 언어-문화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자기 사회의 언어-문화적 경계를 (무)의식적으로 넘나드는 행위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원문의 자유로운 재창조가 아닌 창조로서의 번역(translation as creation) 또는 창의적 번역(creative translation)은 '번역적 허용'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20세기 번역이론의 최고의 고전으로 인정받는 「번역가의 과제(Die Aufgabe

13) Chris Baldick, *The Concise Oxford Dictionary of Literary Terms*,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197.

14) Peter Childs & Roger Fowler, *The Routledge Dictionary of Literary Terms*, Routledge, 2006, 178.

des Übersetzers, 1923)에서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번역에서 진정한 자유란 원작의 의미의 전달을 통해 그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가 자신의 낯은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림으로써 원작의 낯선 언어에 간혀 있는 순수 언어를 해방시키는 가운데 확인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sup>15)</sup>. 또한 독일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루돌프 판비치(Rudolf Pannwitz)는 벤야민의 「번역가의 과제」에서 인용된 『유럽 문화의 위기(Die Krisis der europäischen Kultur, 1917)』에서 번역가에게 자신의 언어의 우연한 상태인 관용(Sprachgebrauch)에 얽매이지 말고 번역을 통해 이 관용에 낯선 언어의 충격(Bewegung)을 가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언어를 확장하고 심화시킬 것을 촉구하였다<sup>16)</sup>.

결론적으로 베르만과 투리의 관점에서 비교 고찰한 문학번역가의 자유는 우리에게 번역적 허용에 의거한 당대 번역 규범의 창조적 위반(creative

15) 또한 바로 이 순수언어에서 번역의 자유가 새롭고 높은 권리를 부여받는다라는 점이 확인된다. 번역의 자유는 전달되어야 하는 의미를 통해 그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전달의 의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충실성의 과제이다. 오히려 번역의 자유는 순수 언어를 위해 번역자의 언어에서 실증되어야 한다. 낯선 [원작의] 언어 마력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는 순수 언어를 번역자 자신의 언어를 통해 해방시키고 또 작품 속에 간혀 있는 언어를 그 작품의 재창작(Umdichtung)을 통해 해방시키는 것이 번역자의 과제이다. 이 순수 언어를 위해 번역자는 자신의 언어의 낯은 장벽을 무너뜨린다. 루터, 포스, 윌덜린, 게오르케는 독일어의 경계를 확장했다. (발터 벤야민 2008: 139)

16) “우리의 번역은, 비록 그것이 가장 좋은 번역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원칙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들 번역은 독일어를 힌두어화, 그리스어화, 영어화하는 대신 힌두어 그리스어 영어를 독일어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 번역자들은 외국 작품의 정신에 대해서보다는 그들 자신의 언어 사용에 대해 더 큰 존경심을 갖고 있다. (.....) 번역자의 기본적 오류는, 자신의 언어가 외국어를 통해 강력하게 영향을 받도록 하는 대신 자신의 언어가 처해 있는 우연적 상태를 고수하는 데 있다. 번역자는 특히 자신의 언어와는 멀리 떨어진 언어에서 번역할 때에는, 언어 그 자체의 궁극적 요소들, 즉 말과 형상과 어조가 하나로 합쳐지는 점에까지 소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외국어의 수단을 통해 자신의 언어를 확대하고 심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그것이 가능하고 또 어느 정도까지 모든 언어가 변화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마치 방언과 방언이 서로 다른 것처럼 언어와 언어 또한 서로 다르다는 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Rudolf Pannwitz, *Die Krisis der europäischen Kultur*, Hans Carl, 1917: 240, 242. 발터 벤야민 2008: 140에서 재인용)

transgression)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자유의 정의에서 출발하여 인공지능과 집단지성이 주름잡는 오늘날 문학번역가 뿐만 아니라 번역가 일반의 정체성이 보다 긍정적이고 창의적으로 정립될 수 있으리라 전망해본다.

### 참고문헌

- 발터 벤야민 (2008) 「번역자의 과제」,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번역자의 과제 외』, 최성만 옮김, 서울: 도서출판 길, 119-142.
- 앙트완 베르만 (2011) 『번역과 문자: 먼 것의 거처』, 윤성우·이향(역), 서울: 철학과현실사.
- 조재룡 (2018) 「번역(가)의 ‘자유’와 ‘주어 혹은 주어 없음’의 시련」, 『문학동네』 25(1): 488-510.
- Baldick, Chris (2001) *The Concise Oxford Dictionary of Literary Terms*, Oxford: Oxford UP.
- Benjamin, Walter (2017) ‘Die Aufgabe des Übersetzers’, in Walter Benjamin, *Werke und Nachlaß. Kritische Gesamtausgabe – Band 7: Charles Baudelaire, Tableaux Parisiens*, Herausgegeben von Antonia Birnbaum und Michel Métayer, Frankfurt: Suhrkamp, 9-25.
- Berman, Antoine (1985) ‘La traduction et la lettre ou l’auberge du lointain’, in Antoine Berman et al. (éds) *Les tours de Babel: essais sur la traduction*, Mauvezin: Trans-Europ-Repress, 33-150.
- Berman, Antoine (1999) *La traduction et la lettre ou l’auberge du lointain*, Paris: Seuil.
- Berman, Antoine (1995) *Pour une critique des traductions: John Donne*, Paris: Gallimard.
- Boothman, Derek (2002) ‘Translatability Between Paradigms: Gramsci’s Translation of Crocean Concepts’, in Theo Hermans (ed.) *Crosscultural Transgressions: Research Models in Translation Studies II*, Manchester/Northampton: St Jerome, 103-119.

- Brownlie, Siobhan (2003) 'Berman and Toury: The translating and translatability of research frameworks', *TTR* 16(1): 93-120.
- Childs, Peter and Fowler, Roger (2006) *The Routledge Dictionary of Literary Terms*, London: Routledge.
- Cronin, Michael (2013) *Translation in the digital age*, London: Routledge.
- Durieux, Christine (1991) 'Liberté et créativité en traduction technique', in Marianne Lederer & Fortunato Israël (éds) *La liberté en traduction*, Paris: Didier Érudition, 169-189.
- Erez, Ronny (2004) 'Freedom and Creativity', *The Journal of Secondary Gifted Education* 15(4): 133-140.
- Fromm, Erich (1941) *Escape from Freedom*, New York: Avon Books.
- Gambier, Yves (2014) 'Changing Landscape in Trans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ety, Culture & Language* 2(2): 1-12.
- Gambier, Yves (2016) 'Rapid and Radical Changes in Translation and Translation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0: 887-906.
- Glăveanu, Vlad Petre (2016) 'Translation', in Vlad Petre Glăveanu, Lene Tanggaard, Charlotte Wegener (eds) *Creativity – A New Vocabulary*, Houndmills, Basingstoke & New York: Palgrave Macmillan, 172-180.
- Hewson, Lance (2006) 'The Vexed Question of Creativity in Translation', *Palimpsestes* Hors série: 54-63.
- Iaia, Pietro Luigi (2016) 'Creativity and readability in game localisation: A case study on Ni No Kuni', *Lingue e Linguaggi* 17: 121-132.
- Katan, David (2014) 'Uncertainty in the Translation professions: time to transcreate', *Cultus* 7: 10-19.
- Katan, David (2016) 'Translation at the cross-roads: Time for the transcreational turn?', *Perspectives* 24(3): 365-381.
- Klimkiewicz, Aurelia (2008) 'Que signifie la liberté en traduction littéraire? Entre le produit, le processus, l'activité et la réflexion critique', *Studia Romanica Posnaniensia* 35: 187-198.

- Ladmiral, Jean-René (2014) *Sourcier ou cibliste*, Paris: Les Belles Lettres.
- Lamy, Laurent (2013) 'Conjecture, conjoncture, ouverture: une vue non déterministe de la traduction (Popper, Kuhn et Feyerabend 'revisités')', *Meta* 58(1): 1-24.
- Lefevere, André (1992) *Translation/History/Culture. A Sourcebook*, London: Routledge.
- Mollett, David (2000) 'Liberating the Translator: Foreignisation and the Translator's Freedom', *Norwich Papers* 8: 7-20.
- Paloposki, Outi (2009) 'Limits of freedom: Agency, choice and constraints in the work of the translator', in John Milton & Paul Fadio Bandia (eds) *Agents of Transl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189-208.
- Perrot d'Ablancourt, Nicolas (1654), *Lucien, de la traduction de N. Perrot S' d'Ablancourt*, Paris: Augustin Courbé.
- Rosenzweig, Franz (1984) 'Die Schrift und Luther', in Franz Rosenzweig, *Zweistromland: Kleinere Schriften zu Glauben und Denken*, Dordrecht: Martinus Nijhoff, 749-772.
- Simeoni, Daniel (1998) 'The Pivotal Status of the Translator's Habitus', *Target* 10(1): 1-39.
- Toury, Gideon (1980) 'The Translator as a Nonconformist-to-be, or: How to Train Translators so as to Violate Translational Norms', in Sven-Olaf Poulsen and Wolfram Wilss (eds) *Angewandte Übersetzungswissenschaft*, Århus: Wirtschaftsuniversität, 180-194.
- Toury, Gideon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Toury, Gideon (1998) 'A Handful of Paragraphs on 'Translation' and 'Norms'', *Current Issues in Language and Society* 5(1-2): 9-31.
- Toury, Gideon (2002) 'Translation as a Means of Planning and the Planning of Translation: A Theoretical Framework and an Exemplary Case', in Saliha Paker (ed.) *Translations: (Re)shaping of Literature and Culture*, Istanbul: Bogaziçi University Press, 148-165.

- Toury, Gideon (2012)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 and beyond*, revised edi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Wenkart, Antonia (1963) ‘Creativity and freedom’,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analysis* 23(2): 195-201.
- Wright, Chantal (2007) ‘Faust goes pop: a translator’s rereading(s)’, in *Translation and Creativity: Perspectives on Creative Writing and Translation Studies*, Eugenia Loffredo and Manuela Perteghella (eds) London and New York: Continuum, 145-157.

<인터넷 자료>

네이버 사전. <http://dic.naver.com>.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8/4(금) “베스트셀러 시인이라도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http://www.cbs.co.kr/radio/pgm/board.asp?pn=read&skey=&sval=&anum=33581&vnum=5148&bgrp=4&page=&bcd=007C055E&pgm=1383&mcd=BOARD2>>

[Abstract]

**Literary translator's freedom:  
comparison of the viewpoints of Berman and Toury**

Yi, Yeong-Houn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viewpoints of Antoine Berman and Gideon Toury on the concept of the literary translator's freedom in order to reestablish his/her identity in the era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ollective intelligence. As a result of my comparative investigation,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concept of the translative license for empowering the language-culture of the target society by granting the literary translator the right to violate its translation norms. This will be a good solution for the literary translator to be recognized for his/her creativity without fearing the negative sanctions from the part of his/her own community.

- ▶ Key Words: Creativity, Freedom, Subjectivity, Transgression, Translative License
- ▶ 주제어: 번역 재량, 위반, 자유, 주체성, 창의성

이영훈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erasme@korea.ac.kr

관심분야: 번역개념사, 번역사회학, 번역비평

논문투고일: 2019년 11월 3일

수정완료일: 2019년 12월 2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5일